

2021년 9월 10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월 9일(목) 12:00 이후 보도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대전관
한국판뉴딜

• 문의: 중소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강기성 과장(044-204-7500), 김혜인 사무관(7504)

중기부, 수출 중기 1,105개사 물류전용 이용권 최대 2,000만원 지원

- 수출 의존도가 높고 물류비 부담이 증가한 중소기업 1,105개사 선정해 국제운송비 109억원 본격 지원
 - 일반물류 지원 분야에 선정된 1,039개사에는 수출이용권의 국제운송비 메뉴를 활용해 해상·항공운임 및 보험료 지원
 - 장기운송계약 지원 분야에 선정된 66개사에는 국제운송비와 국적선사와 장기운송계약 체결 및 전용 선적 공간까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9월 10일(금), 2021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지원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21년 9월 해상운임이 '20년 초 대비 4배 이상, '21년 초 대비 1.5배 이상 상승*하는 등 중소기업 물류애로가 지속돼 왔다.

*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 ('20.1) 999 → ('20.6) **983** → ('21.1) 2,872 → ('21.9.3) **4,503**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수출 물류애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을 제공하고 온라인 수출 공동물류, 수출바우처 등을 통해 국제운송비를 지원해 왔다.

또 중기부는 지난 7월 추경예산 109억원을 확보해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을 신설했으며, 수출중소기업 1,105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2,000만원(정부보조율 70%)의 물류전용 바우처를 지급한다.

일반물류 지원분야에 선정된 1,039개사 기업은 물류전용 바우처를 통해 수출바우처사업 누리집(www.exportvoucher.com/logi)의 국제운송비 서비스를 아용하거나,

물류사에 관계없이 해상·항공운임 및 보험료를 최대 2,000만원(정부 보조율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장기운송계약 지원분야에 선정된 66개사**는 국적선사 에이치엠엠(HMM)과 장기운송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미주 서안항 정기선박에 200TEU의 선적 공간을 제공(~'21.12)받아 안정적인 해상물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물류 지원 분야에 선정된 (주)아로마티카 김영균 대표는 “수출경기는 작년에 비해 많이 좋아졌지만 물류비가 급등해서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이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 어려움을 많이 해소해줄 것 같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장기운송계약 지원 분야에 선정된 아쿠아수산(주) 김기복 대표이사는 “선박 예약도 힘들고 컨테이너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 수출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선박 공급과 고정운임을 활용할 수 있어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중기부는 수출바우처 사업을 통한 국제운송비 지원 외에도 ‘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 ‘온라인 수출 공동물류’ 사업 등 중소기업 물류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서,

- * 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 : 해양수산부, 에이치엠엠(HMM)과 협업하여 미국, 유럽항로에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을 제공(kr.gobizkorea.com, 수시접수)
- **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 전자상거래 기업 대상 항공·해상 운임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kr.gobizkorea.com, 9월 10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수출물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은 해당 사업들을 적극 이용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김혜인 사무관(☎044-204-750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